

대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

봉은주^{1*}, 하윤주²

¹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호남대학교 간호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dult children Propensity &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Eun-Ju Bong^{1*} and Yun-Ju Ha²

¹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Ho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G시에 있는 502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고,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중독은 성인아이 성향($r=.395, p<.001$)과 정신건강($r=.479,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인아이 성향은 정신건강($r=.43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아이 성향을 함께 고려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dult children propensity,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502 college students in G city, from November 5 to November 30, 2012 and analyzed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Internet addiction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ult children propensity($r=.395, p<.001$) and mental health($r=.479, p<.001$). Adult children propensity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mental health($r=.432, p<.001$). Also, General characteristics, internet addiction and adult children propensity accounted for 42% of the variance i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need to consider adult children propensity to reduce internet addiction and improve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Mental health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에게 인터넷의 사용은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인터넷의 사용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 채팅, 게임, 음악,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의 발달로 다양하고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쌍

방향의 의사소통 기능과 함께 익명성을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보급률로 만 3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이 78.4%이며, 이중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이용률은 99%에 달하고 있다[2]. 그러나 과도한 인터넷사용은 일상생활에서의 무관심과 무력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분별력 기능 약화, 인터넷 사용을 그만 두면 견디지 못하는 금단증상, 그리고 이용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투자하게 되는 내성증상 등 인터넷중독 증상을

*Corresponding Author : Eun-Ju Bong(Chunnam Techno Univ.)

Tel: +82-61-360-5328 email: b-e-j@hanamil.net

Received September 3, 2013 Revised September 27,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경험할 수 있다[3].

최근 만5세~49세 인구 총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중독률은 7.2%(약 220만 명)에 달하며, 유아동이 7.3%, 10대가 10.7%, 20대 9.0%, 30대 5.2%, 40대 4.0%로 10대와 20대의 인터넷중독률이 가장 높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인터넷중독(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이란 Goldberg[5]에 의해 처음 제안된 용어로서,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을 의미한다. Young[3]은 문제성 인터넷 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 PIU)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병리적 도박, 섭식장애, 알코올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다양한 중독행동을 보이면서 사회적, 경제적, 직업적 생활에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장애라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중독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발달단계상 사회인으로써 살아갈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10대와 20대의 중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부모나 교사의 규제를 받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달리 성인으로써, 학내, 집, PC방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심각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은 중독행위로 인한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 더욱더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즉, 인터넷중독은 우울, 불안, 사회공포 및 공격성, 강박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물질관련장애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증가시키며[6], 우울, 사회공포, ADHD, 공격성은 인터넷중독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Young[8]은 인터넷중독자의 54%가 우울증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34%가 불안을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은 정상군에 비해 우울, 불안, 강박증, 신체화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였고[9], 우울과 함께 자살사고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0,11]. 대학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중독은 우울이나 불안과 신체화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6,12,13].

이러한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가정의 응집력이나 기능은 인터넷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즉, 가족의 응집력이 낮고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가 없는 역기능적인 가정은 인터넷중독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알코올중독과 같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을 성인아이(adult children)라고 하는데, Her[16]는

이들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어린 시절 가정에서 위로받거나 충족 받지 못한 결과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유년의 감정과 행동을 보이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as cited in [17]). 성인아이 성향이 높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모두는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문제가 높으며,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또한 Yoon[18]은 알코올중독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아이는 성인아이 성향이 높고 음주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결국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성인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성인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는 성인아이 성향을 갖게 되며, 인터넷중독이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성인아이 성향과 알코올중독이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주로 시행되었지만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정신건강, 성인아이 성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정신건강, 성인아이 성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대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아이 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G시 소재한 4년제 대학 1곳, 전문대학 1곳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대학 내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각 학과에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1개 학과의 학생들에게 연구보조원이 강의 시작 전에 설문지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하였다.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효과 크기 .30, 유의수준 α 를 .05, Power ($1-\beta$) 를 .80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223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20명을 선정하여 표본크기는 충분하였다. 자료 분석시에는 응답이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502부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Young[3]이 개발한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00점 중 39점 이하는 정상 이용자, 40~69점은 인터넷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초기 인터넷중독자, 70점 이상은 인터넷 사용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심각한 인터넷중독자로 분류된다. Young[3]이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3.2 성인아이 성향 도구

성인아이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Park 등[17]이 개발한 성인아이증후군 선별척도(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CST)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3점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별 점수범위는 1에서 24점이고, 총점의 범위는 24점에서 72점까지이다. 3문항 (1, 10, 19)은 순응적인 반응을 배제하기 위한 추가문항으로 실제 점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아이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은 대인관계적 특성, 정서적 특성, 사고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적인 특성은 성인아이들이 보이는 의존적 대인관계 성향을 의미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인정이 나 눈치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권위적인 대상에게 부담감

을 느끼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된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특성은 성인아이들이 보이는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발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이다. 사고 특성은 성인아이들이 보이는 사고적인 특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도한 책임감이나 보호부담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 등 [17]은 성인의 경우 총점이 55점 이상, 청소년의 경우 53점 이상인 경우 집중적인 임상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치료집단으로 제시하였다. Park 등[17]이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였다.

2.3.3 정신건강 측정도구

간이정신진단검사 단축형-18(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은 Derogatis[19]가 심리학적 불편감들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통합시리즈 중에 가장 간결한 특성을 지닌 검사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표준화된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의 단축형으로 신체화, 우울, 불안의 세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신건강문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다. 국내에서는 Park, Woo와 Chang[20]이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신체화, 우울, 불안, 공황의 4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본다. 도구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화 .74, 우울 .84, 불안 .79였으며, Park 등[20]의 연구에서는 신체화 .73, 우울 .80, 불안 .81로 수용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6이었다.

2.3.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사용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성인아이 성향이 인터넷사용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정도는 성별 ($t=2.837, p=.005$), 대상자가 지각한 학교 성적($F=4.184, p=.016$), 교우관계 만족도($F=6.414, p=.002$), 인터넷사용 장소($F=6.893, p<.001$), 인터넷사용 빈도($F=8.818, p<.001$), 인터넷사용 시간($F=15.101, p<.001$), 인터넷사용 동기($F=16.645,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인터넷중독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업성적이 하위라고 지각하는 학생이 상이나 중이라고 지각한 학생보다, 교우관계 만족도가 불만족스러운 학생이 만족스러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사용을 PC방에서만 한 학생이 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1주일 동안 인터넷사용 빈도가 6~7일인 학생이 1~3일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루 인터넷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이 2시간 이하인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사용 동기가 온라인 게임, 웹서핑이나 쇼핑 등의 다양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없이(심심해서)인 경우가 이메일 확인과 자료나 정보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아이 성향 정도는 성별($t=2.290, p=.022$), 교우관계 만족도($F=3.175, p=.043$), 인터넷사용 장소($F=4.831, p=.003$), 인터넷사용 시간($F=4.962, p=.002$)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성인아이 성향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우관계가 불만족스러운 학생이 만족스러운 학생보다, 인터넷사용을 PC방에서만 한 학생이 집에서 사용한 학생보다, 하루 인터넷사용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학생이 2시간 이하인 학생이나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하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정도는 성별($t=3.547, p<.001$), 학년($F=8.981, p<.001$), 대학생활 만족도($F=3.295, p=.038$), 교우관계 만족도($F=9.658, p<.001$), 인터넷사용시간($F=7.885,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정신건강 정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1학년, 2학년, 4학년 보다는 3학년이, 대학생활이 불만족스런 학생이 만족스러운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우관계가 만족스럽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불만족스러운 학생이, 하루 인터넷사용 시간이 2시간 이하인 학생보다 6시간에서 10시간 사용하는 학생과 11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하는 학생보다 11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성향, 정신건강 정도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수준은 중독군 8.2%, 잠재적 중독군 53.4%, 정상군 38.4%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중독 수준의 평균은 46.13 ± 17.57 로 나타났다. 성인아이 성향은 총 평균이 43.96 ± 9.77 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적 특성이 14.31 ± 4.58 , 정서적 특성이 13.28 ± 4.26 , 사고 특성이 16.38 ± 4.20 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은 총 평균이 36.97 ± 14.92 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우울이 12.85 ± 5.22 , 공황이 5.85 ± 2.77 , 불안이 8.30 ± 3.64 , 신체화 10.00 ± 4.23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중독은 성인아이 성향($r=.395, p<.001$)과 정신건강($r=.479,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인아이 성향은 정신건강($r=.43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의 하위영역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적 특성($r=.435, p<.001$)과 정서적 특성($r=.371, p<.001$)과는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사고 특성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과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r=.473, p<.001$), 공황($r=.438, p<.001$), 불안($r=.410, p<.001$), 신체화($r=.474, p<.001$)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인아이 성향과 정신건강과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는 우울($r=.436, p<.001$), 공황($r=.386, p<.001$), 불안($r=.367, p<.001$), 신체화($r=.425, p<.001$)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성인아이 성향의 하위영역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는 대인관계적 특성($r=.449, p<.001$), 정서적 특성($r=.442, p<.001$)에서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사고 특성과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지각된 경제적상태, 인터넷접속빈도, 인터넷사용시간과 상관관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등의 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beta = .16, p < .001$), 지각된 경제적상태($\beta = .08, p = .020$), 인터넷접속빈도($\beta = -.17, p < .001$), 인터넷사용시간($\beta = .10, p < .01$), 인터넷중독($\beta = .33, p < .001$), 성인아이 성향 중 대인관계적 특성($\beta = .20, p < .001$), 정서적 특성($\beta = .25, p < .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정신건강에 대해 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1] Differences in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propensity and Mental Health by General and Internet Us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02)

Valuables	Category	n(%) M±SD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propensity		Mental health	
			M±SD	t/F Scheffé	M±SD	t/F Scheffé	M±SD	t/F Scheffé
Sex	Male	321(64.2)	47.68±18.01	2.837**	43.22±10.09	2.290*	35.30±15.21	3.547***
	Female	179(35.8)	43.08±16.27		45.30±09.09		40.07±13.93	
Grade	1st ^a	109(21.8)	45.71±16.57	1.818	42.84±09.87	1.580	36.83±14.48	c>a c>b c>d
	2nd ^b	116(23.2)	43.82±17.84		43.25±09.07		34.24±13.81	
	3rd ^c	133(26.5)	48.88±19.89		45.35±10.69		42.41±15.74	
	4th ^d	143(28.5)	45.70±16.30		44.07±09.29		34.38±14.11	
Religion	Christian	138(27.6)	46.29±17.89	1.043	44.22±10.14	.664	36.29±14.77	1.689
	Catholic	57(11.4)	43.79±22.51		44.47±09.26		37.13±16.59	
	Buddhism	67(13.4)	45.99±18.02		43.82±09.25		37.22±16.18	
	Others	10(2.0)	56.00±12.94		48.30±08.18		48.80±17.76	
	None	228(45.4)	46.16±15.98		43.54±09.91		36.62±14.91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50(10.0)	45.56±19.61	.064	44.58±10.91	.109	35.76±15.75	1.593
	Middle	360(71.9)	46.14±17.36		43.93±09.45		36.56±14.62	
	Low	91(18.2)	46.18±17.56		43.84±10.44		39.48±15.47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a	113(22.5)	44.21±19.18	4.184* c>a c>b	44.95±11.29	1.936	35.99±15.87	1.936
	Middle ^b	313(62.4)	45.74±16.50		43.38±09.02		36.53±14.46	
	Low ^c	74(14.8)	51.43±18.33		45.39±09.87		40.07±15.18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Satisfactory ^a	248(59.5)	45.24±18.11	.791	43.35±10.09	1.169	35.53±14.83	3.295* c>a
	Usually satisfactory ^b	179(35.7)	46.54±17.29		44.27±08.85		37.65±14.43	
	UnSatisfactory ^c	74(14.8)	48.01±16.46		45.20±10.76		40.37±15.89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actory ^a	326(64.9)	44.32±17.44	6.414** c>a	43.31±09.63	3.175* c>a	34.85±14.56	9.658*** b>a c>a
	Usually satisfactory ^b	143(28.5)	48.46±16.45		44.64±09.63		40.74±14.75	
	UnSatisfactory ^c	33(6.6)	53.97±20.50		47.42±11.03		41.48±15.42	
Internet use place	House ^a	339(67.8)	45.94±17.09	6.893*** c>a c>b	44.26±09.31	4.831** c>b	36.76±14.14	.352
	School ^b	57(11.4)	40.35±15.08		40.51±11.03		37.05±14.92	
	PC room ^c	77(15.4)	53.22±19.70		46.39±11.04		38.60±18.00	
	Others ^d	27(5.4)	42.52±15.48		41.33±05.51		37.05±14.91	

[Table 1] continued

Variables	Category	n(%) M±SD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propensity		Mental health	
			M±SD	t/F Scheffé	M±SD	t/F Scheffé	M±SD	t/F Scheffé
Using frequency (per week)	None ^a	28(5.6)	41.57±21.86	8.818***	42.86±11.72	2.553	40.07±16.29	.762
	1~3days ^b	188(37.6)	42.10±15.53	d>b	42.55±10.49		37.66±14.94	
	4~5days ^c	96(19.1)	47.02±16.29		44.70±08.79		36.76±15.33	
	6~7days ^d	187(37.5)	50.45±18.44		45.14±09.02		36.08±14.47	
Using time (per ones)	≤2h ^a	303(60.4)	42.39±16.49	15.101***	43.25±10.13	4.962**	35.49±14.31	7.885***
	3~5h ^b	138(27.5)	49.65±16.16	b>a c>a d>a	43.70±08.24	d>a d>b	36.69±14.71	
	6~10h ^c	41(8.2)	56.05±17.92		46.85±10.34		43.00±15.65	
	≥11h ^d	20(4.0)	58.20±24.00		50.60±09.81		49.00±16.40	
Motive of Internet using	for online game ^a	115(23.2)	53.82±17.67	16.645***	45.28±09.57	1.545	37.30±15.16	.189
	for send to e-mail, search for data or information ^b	229(46.2)	40.93±16.16	a>b c>b d>b	43.22±10.46		36.96±15.03	
	for websurfing, shopping or others ^c	84(16.9)	47.56±16.33		43.33±09.10		36.44±14.33	
	without for special reason(boring) ^d	68(13.7)	49.81±17.90		45.09±08.54		38.19±14.90	

* p<.05, ** p<.01, *** p<.001

[Table 2]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Propensity and Mental Health of the Subjects

(N=502)

Variables	Category	n(%)	M±SD	Minimum	Maximum
Level of internet addiction	Nonaddicts(NA)	193(38.4)	27.97±5.83	20	39
	Possible Internet addicts(PA)	268(53.4)	54.02±8.13	40	69
	Internet addicts(IA)	41(8.2)	80.07±8.44	70	100
	total	502(100)	46.13±17.57	20	100
Adult children propensity	Adult Children Propensity Level ≤ 54	435(86.7)	41.51±7.92	24	72
	Adult Children Propensity Level ≥ 55	67(13.3)	59.63±4.96	24	72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		14.31±4.58	8	24
	Characteristics of emotion		13.28±4.26	8	24
	Characteristics of thought		16.38±4.20	8	24
Mental health	total		43.96±9.77	24	72
	Depression		12.85±5.22	6	30
	Panic		5.85±2.77	3	15
	Anxiety		8.30±3.64	4	20
	Somatization		10.00±4.23	5	25
	total		36.97±14.92	18	90

[Table 3] Correlations among Internet Addiction, Adult Children Propensity and Mental Health

(N=502)

Variables	Internet addiction	ACP (total)	CIR	CE	CT	Mental health (total)	DP	PA	AX	SMZ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Internet addiction	1									
ACP (total)	.395 (<.001)	1								
CIR	.435 (<.001)	.778 (<.001)	1							
CE	.371 (<.001)	.764 (<.001)	.418 (<.001)	1						
CT	.067 (.134)	.701 (<.001)	.294 (<.001)	.305 (<.001)	1					
Mental health (total)	.479 (<.001)	.432 (<.001)	.449 (<.001)	.442 (<.001)	.064 (.152)	1				
DP	.473 (<.001)	.436 (<.001)	.470 (<.001)	.427 (<.001)	.065 (.148)	.945 (<.001)	1			
PA	.438 (<.001)	.386 (<.001)	.384 (<.001)	.384 (<.001)	.024 (.588)	.912 (<.001)	.812 (<.001)	1		
AX	.410 (<.001)	.367 (<.001)	.344 (<.001)	.410 (<.001)	.060 (.183)	.937 (<.001)	.814 (<.001)	.826 (<.001)	1	
SMZ	.474 (<.001)	.425 (<.001)	.429 (<.001)	.429 (<.001)	.082 (.066)	.957 (<.001)	.872 (<.001)	.849 (<.001)	.879 (<.001)	1

ACP=Adult child propensity; CIR: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 CE: Characteristics of emotion, CT: Characteristics of thought, DP=Depression, PA=Panic, AX=Anxiety, SMZ=Somatization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Mental health

(N=502)

Variables	B	β	t	p	
Internet Addiction	.28	.33	7.764	<.001	
ACP	CIR	.67	.20	4.742	<.001
	CE	.88	.25	6.222	<.001
	CT	-.28	-.08	-2.039	.042
Sex	4.84	.16	4.294	<.001	
Perceived economic status	2.33	.08	2.326	.020	
Internet Using frequency (per week)	-2.64	-.17	-4.725	<.001	
Internet Using time (per ones)	1.85	.10	2.662	<.01	

R²=.42, F=43.88, p<.001

ACP=Adult child propensity; CIR: Characteristics of interpersonal relations, CE: Characteristics of emotion, CT: Characteristics of thought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대학생의 인터넷중독은 정상군 38.4%, 잠재적 중독군 53.4%, 중독군 8.2%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 결과는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K-척도를 사용한 National Informational Society Agency[NIA][4]의 조사에서 발표한 10.6%, Chung과 Cho[12]의 연구에서 보고한 10.9% 보다는 낮았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Young[3]이 개발한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한 Jeon[21]의 연구에서 보고한 6.9%, Kim과 Kim[22]의 연구에서는 나타난 4.5%보다는 높았다. 인터넷중독률에 대한 결과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본추출방법, 샘플의 크기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잠재적 중독군까지 포함하여 문제성 인터넷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61.6%정도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정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0,23]. 본 연구에서는 학교성적이 하위라고 지각한 경우가 상이나 중간이라고 지각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Hyun과 Kim[24]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불만족스러운 학생일수록 인터넷중독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도 선행연구결과[25,26]와 일치했으며, 이는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인터넷에 쉽게 몰입하여 현실에서의 인간관계 보다는 가상세계에서 소통을 즐기면서 보다 인터넷중독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관련 특성에서, 인터넷 사용을 집이나 학교보다는 PC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1주일간 인터넷 사용 빈도가 6-7일로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경우,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인터넷 사용동기가 이메일 확인이나 정보검색보다는 온라인 게임, 웹서핑이나 쇼핑, 특별한 이유없이(심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1,24,25,1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중 인터넷 사용 장소가 PC방인 경우가 높게 나타난 것은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인터넷중독은 현실에서의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가상세계에서 게임이나 쇼핑 등에 몰입하면서 자주 인터넷에 접속하고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인터넷 사용에 할애하는 경우에 심각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의 성인아이 성향은 총 평균이 43.96±9.77, 하위영역에서는 대인관계적 특성이 14.31±4.58, 정서적 특성이 13.28±4.26, 사고 특성이 16.38±4.20으로 나타났다. Park 등[17]의 연구에서는 성인아이 성향 총 평균이 일반집단에서 43.57±7.73로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성인아이 성향 총점이 55점 이상일 경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잠재적인 치료집단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55점 이상이 13.3%로 나타나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아이 성향 정도에서, 인터넷중독과는 달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활이 불만족스럽고, 교우관계가 불만족스러운 학생일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의 경우 보다 성인아이 성향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전반적으로 남학생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Shin[27]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Shin[27]은 대학생활 적응 중 개인-정서적 적응이 성인아이 성향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 결과로 성인아이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서 정서적인 불안정을 보다 경험하면서 대학생활에 불만족스럽고 대인관계상의 문제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성인아이 성향은 인터넷 사용을 PC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아이 성향이 인터넷중독 수준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PC방에 게임에 몰입하면서 하루 중 11시간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중독 수준도 심각하며, 이와 함께 성인아이 성향 정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정신건강문제는 총 평균이 36.97±14.92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우울이 12.85±5.22, 공황이 5.85±2.77, 불안이 8.30±3.64, 신체화 10.00±4.23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1, 2, 4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신건강에 취약하며, 고학년 보다는 1, 2학년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대학생활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적응상의 문제로 더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한 Kim[26]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대학생활이 불만족스럽고, 교우관계가 불만족스러운 경우에 정신건강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Kim[26]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인터넷사용 시간에서 3시간 이하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6시

간 이상, 11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들이 훨씬 정신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나, 하루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할애하는 학생들은 보다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의 정도는 공통적으로 보다 대학 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 대학생활 적응이 어렵고,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허비하는 경우에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 관계는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의 하위영역인 불안, 우울, 공황, 신체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26,9,7,6,12]. 특히 중증 인터넷중독군에서는 우울과 함께 자살사고나 자살 시도 경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11,10,12]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중독과 같은 중독문제가 단순히 발생할 수 있는 공존(Comorbidity)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Ko 등[7]은 임상에서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문제가 공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터넷중독 사례발견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병행되지 않고 단순한 교육이나 개입으로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치료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Yoon, Cho와 Lee[27]도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중독행위가 공존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단일 중독문제에만 접근하기보다 인터넷중독, 문제음주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해 동시에 조기선별하고, 정신건강문제도 함께 파악하여 서비스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문제와의 관계만 분석하였는데, 추후에는 음주문제나 도박문제와 같은 중독문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성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과의 양적 관계와 동시에 성인아이 성향이 이 두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즉, 성인아이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인터넷중독 수준이나 정신건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성인아이 성향과 인터넷중독과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가 없어 성인아이 성향이 역기능적 가정의 산물로서 설명됨을 감안하여 역기능

적 가정이나 가족갈등과 같은 변수들과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는 역기능적 가정이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기능을 매개로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고[14,15], 가족기능이 낮고 가족의 응집력이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2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성인아이 성향은 인터넷중독 뿐 아니라 정신건강문제와도 관련성을 나타냈는데, Park 등[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성인아이 성향이 높은 대학생들은 신체화, 강박증, 우울, 불안, 공포, 편집증,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회귀계수의 값이 큰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이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문제를 함께 중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따라서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단편적인 교육보다는 인터넷중독과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성인아이 성향도 고려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활에서 만족도가 낮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검색이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게임이나 쇼핑, 아무런 이유 없이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 문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중독관리센터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여 보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부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에 관한 단면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은 조사하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중단적인 연구를 통해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뿐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음주문제, 도박중독 등의 다양한 중

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독문제의 공존위험성을 조사하여 정신건강과 성인아이 성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할 만족도가 낮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으며, 정보검색이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게임이나 쇼핑, 아무런 이유 없이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인터넷중독, 성인아이 성향,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상호간 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인터넷중독과 성인아이 성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인터넷중독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아이 성향도 함께 고려한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인다.

References

- [1] S. Y. Ahn, H. J. Kim, S. H. Yoon, & S. M. Cheon,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d dysfunctional home to internet addiction: By the medium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Science*, 12(2), pp.33-46, 2009.
- [2] Y. S. Byeon, & H. S. Lee, "The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on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8(3), pp.460-468, 2007.
- [3] H. S. Choi, & J. C. Ha, "A study on the factors including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3), pp.437-448, 2011.
- [4] M. Y. Chung, & O. H. Cho, "Psycho-social well-being of students depending on a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5), pp.366-376,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5.366>
- [5] De J. A. Leo, & E. Wulfer,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other risky behaviors on college students: An applicat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27(1), pp.133-141, 2013.
DOI: <http://dx.doi.org/10.1037/a0030823>
- [6] L. R. Derogatis, Brief Symptom Inventory(BSI-18).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 Minneapolis: NCS Pearson, Inc. 2001.
- [7] I. Goldberg, *Internet addiction disorder*, 1996.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www.psychom.net/iadcriteria>.
- [8] E. S. Her, A study on adult children and the treatment of dysfunction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yeonggi Province, 1997.
- [9] M. Y. Hyun, & M. D. Kim, "A study of internet addiction and awareness of gambl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Nursing*, 18(1), pp95-103, 2009.
- [10] E. J. Jeon, H. J. Lee, & B. C. Chun, "Internet addic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chool Health*, 25(2), pp.214-221, 2012.
- [11] H. J. Jeon, "The attachment styl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3), pp.137-159, 2006.
- [12] E. S. Jung, & M. S. Shim,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in low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pp.328-340,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328>
- [13] J. H. Kim, & K. S. Kim,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unction in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5(2), pp.155-171, 2010.
- [14] J. H. Kim, & K. S. Kim, "The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mode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1), 235-268, 2006.
- [15] K. H. Kim, E. J. Ryu, M. Y. Chon, E. J. Yeun, S. Y. Choi, J. S. Seo,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3, pp.185-192, 2006.
DOI: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5.02.005>
- [16] K. O. Kim, "Study on mental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nsan university freshman in 2004 year"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2, pp.279-300, 2004.
- [17] C. H. Ko, J. Y. Yen, C. F. Yen, C. S. Chen, & C. C. Chen,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psychiatric disorder: A review of the literature"

European Psychiatry, 27, pp.1-8, 2012.

DOI: <http://dx.doi.org/10.1016/j.eurpsy.2010.04.011>

- [18]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Seoul: Author, December, 2012.
- [19] Y. R Kweon, & M. S. Park,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game addictio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Nursing*, 21(2), pp.99-107,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2.99>
- [20] C. J. Nam, "College stud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1), pp.121-140, 2009.
- [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Survey on the internet addiction*. Seoul: Author. December, 2012.
- [22] H. S. Park, S. G. Lee, & J. Jekarl. *Development of a tool for assessing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Seoul: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2001.
- [23] K. P. Park, S. W. Woo, & M. S. Chang, "Validational study of Brief Symptoms Inventory-18 (BSI-18)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2), pp.507-521, 2012.
- [24] H. N. Shin, The effect of adult-child, social support and self-resiliency o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2008.
- [25] M. S. Yoon,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ACOA traits among university students of alcoholic family"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7(2), pp.29-49, 2006.
- [26] M. S. Yoon, H. J. Cho, & H. J. Lee, "Effects of internet use and alcohol use on the adolescent's depressio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5(4), pp.347-370, 2009.
- [27] K.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3, pp.237-244, 1996.
- [28] K. Young. Internet addiction: Symptom, evaluation, and treatment, 1999. Retrieved June 3, 2013, from <http://www.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pdf>

봉 은 주(Eun-Ju Bong)

[정회원]



- 1998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8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중독, 알코올중독 치료 및 재활, 지역정신보건, 회복

하 윤 주(Yun-Ju Ha)

[정회원]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2013년 8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 다문화가정간호, 영양, 연구 및 통계